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음 10월 25일) 제16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야권, 박 대통령 탄핵추진 가속도

민주당, 탄핵 원하는 민심 무게 수용

금태섭 의원 "다음주 초  
까지 탄핵 초안 마련할 것"  
조웅천 의원 "촛불민심에  
즐거워하면 野도 외면받아"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발족

추진단장에 김관영 의원  
이상돈 의원 등도 참여

정의당도 힘 보탬 듯

심상정 대표 "탄핵절차  
잘 진행토록 공조 절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향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내달 초 탄핵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춘석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단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이 탄핵 초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것에 뜻을 모으고 실무단에서의 역할, 헌법학자 등 외부의 자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단은 이춘석(위원장)·홍영표·금태섭·송기현·안호영·이철희·조웅천·백혜련 의원과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지원단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간사인 금 의원은 "다음주 초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내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토론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오후 1시 도청 기자회견에서 전북도 현안사업 관련,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2면·3면>

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에 집필에 있어서 금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이 중요한 자료"라며 "(박 대통령) 직무와 관련, 헌법을 위배한 사실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저희가 따로 확인했거나 언론에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적어넣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을 바라는 민심의 무게를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조웅천 의원은 "촛불민심이 들끓고,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섰다"고 즐거워하며 야권도 중국에는 버림 받을 것"이라며 "이제 탄핵은 국회에 주어

권한의 차이를 떠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할 의무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춘석 단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발족하고 탄핵소추안 검토 등의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추진단장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으며, 법조인 출신인 송금주·김상화·김정진·송기식·이우주·박주현 의원이 포함됐다. 이상돈 의원, 이견대 당 인권위원장도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변호사·학자 등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다만 1급 비밀에 대한 교환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한국은 미국·호주·영국·프랑스 등 6개국과는 협정

대통령 탄핵소추는 막중한 과제로 탄핵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야권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당 내부에서의 준비 작업과 더불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검찰, 전북혁신도시 연금공단 압수수색

삼성, 최순실 회사 35억 송금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회사에 35억 원을 준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본부 9층 이상장실과 비서실, 감사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모두 3건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최씨 회사인 코페스포츠에 송금한 35억원,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원이다.

이중 삼성이 최순실 측에게 직접 육성 자금 명목이라고 했지만 최순실은 이 돈으로 독일의 호텔과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삼성이 직접 최순실 측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점

에서 일단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35억원을 뇌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수천억 원의 손실 및 내·외부 반대에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 시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돼 있었다.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합병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7월 10일이었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된 것은 같은 달 17일이었다.

특별수사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같은 달 24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자리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이다.

이미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코페스포츠와 최순실 관계에 따라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측에선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강남과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들었다. /고민형 기자

## 정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전주시 방식대로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전주시의 요구가 반영돼 추진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전주시의 요청에 의해 사업 추진 방식을 당초 신청자 직접방문·수령 방식에서 이메일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로써 한창 예민한 시기에 놓인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전주지역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00여명은 택배로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600만원, 시비 24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투입해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여성청소년(1413명,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기지급자 제외)과 지역이동센터 이용자(312명)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106명)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자(176명) 등 총 2007명이다. /김영재 기자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내절차 완료 통보 '발효'

1급 비밀 교환은 빠져... 유효기한은 1년

한·일 두 나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 당일인 23일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금일(23일) 발효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날 27일 관련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이 협정은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 교

환할 비밀정보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 2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로 분류된 비밀과, 한국의 군사 3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로 분류된 비밀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급 비밀에 대한 교환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한국은 미국·호주·영국·프랑스 등 6개국과는 협정

을 통해 1급 비밀을 주고받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한은 1년이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90일 이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편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따른 전달 수단·비밀표시·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 히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